

존 오스왈트 박사, 이사야, 세션 29, 이사야. 60-62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John Oswalt입니다.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까지의 29회기입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는 책의 마지막 부분인 의로움, 종의 성격이라고 부르는 부분의 흥미로운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로움, 섬기는 성격.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이런 종류의 계단식 구조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계단의 두 끝이 평행하고 위로 올라가는 각 계단이 삼각형의 정점인 사다리 꼭대기에 도달할 때까지 평행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과 평행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 자체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이것이 왜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그는 같은 말을 다시, 다소 거꾸로 말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종류의 구조의 가치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준다는 점을 제안했습니다. 섬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종됨의 목표는 온 세상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의 목표는 그들이 나머지 세계를 위한 중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만 갖고 있었다면 이 놀라운 절정에 도달하면서 목표를 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정에 이르면 목표가 무엇인지뿐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 상기하게 됩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종들일 뿐입니다.

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에서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40장에서 55장까지의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처럼 의의 성품도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요구되지만 어쩐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전사가 우리의 적을 물리치러 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정 부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공부를 마치면서 60장부터 62장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56장부터 59장까지의 평행인 63장부터 66장을 살펴보고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옆두에 두고 여기 메모에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우선 60, 1~6이 아니라 63, 1~6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63~66장을 빠르게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두 장을 더 읽어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따라서 63에서 66까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때 우리가 보는 즉각적인 유사점은 신성한 전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후에 언급하겠지만 각 부분에는 동일한 구절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한 전사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경우에는 신성한 전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성한 전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보는 방식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6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3장 7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따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을 찬미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긍휼하심과 그 머리의 풍성함을 따라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느니라

그가 이르되, 자녀들아, 그들은 진실로 내 백성이라, 1장 2절을 기억하라,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으되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그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느니라. 그들의 모든 환난 속에서 그분도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의 얼굴의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들어 올리시며,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안으셨습니다.

10절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동정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혜세드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동정심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역했습니다. 그런 다음 11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이 섹션에서 신성한 전사에 이어 일종의 시작 지표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심과 능력이 어디 있 나이까? 너희 마음의 감동과 너희
동정심이 나에게 막혀 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이시나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옛적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이름이 주의
이름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주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64장 5절. 의를 즐거이
행하는 자를 만나시며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시는 자를 만나시나이다. 보라,
당신은 진노하셨고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더러운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반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돌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 하나님, 우리는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회개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65. 나는 나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발견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말하였노라. 자기 뜻대로 행하고 좋지 아니한 길로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향하여 내가 종일 손을 벌렸나이다.

끊임없이 나를 대면해서 자극하는 사람들 . 그래서. 그러므로 11절, 65-11절,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어버리고 행운을 위해 상을 차리고 운명을 위하여 혼합 포도주 잔을 채우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로 정하리라.

그리고 매우 흥미롭게도 13절과 14절에는 너희와 내 종들의 차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내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배고프리라. 내 종들은 마실 것이지만 너희는 목마르리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흥미로운 질문은 여기 있는 당신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신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달리 그분의 종들, 즉 자신의 종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65-17년에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섹션의 첫 번째 부분에는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도리어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Candice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Candice는 내가 이번 봄에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이사야 반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를 방문하지는 않겠지만 그녀는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무능력이 일차적으로 강조되고 신성한 능력이 약간 강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화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주된 강조점은 신성한 능력에 있고,

작은 강조점은 인간의 무능력에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전체적인 요점은 동일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불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인도를 따르므로 그들이 원할 경우 그에 대해 무엇인가를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강조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네 장, 63, 64, 65, 66장을 보면 첫 번째 부분은 신의 전사 63장 1절부터 6장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3장 7절부터 64장 12장, 그다음 64장, 13장입니다. 네, 고마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장, 2장부터 25장, 그리고 66장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64, 13, 12시에 끝납니다. 12시에 끝납니다. 아, 아,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큰 섹션에는 4개의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좋아요, 63, 5를 보세요. 찾아봤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지만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므로 내 팔이 나를 구원하였고 내 진노가 나를 붙잡았느니라. 그것은 63, 5입니다. 자, 여기 59, 16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중재할 사람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팔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의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그분의 의가 그를 지탱했고, 여기서 그의 진노가 그를 지탱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의로운 진노이자 진노한 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구절이 이 두 구절이 서로 평행하게 이해되어야 함을 확증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의 언어는 매우, 매우 암울합니다. 여기 전사가 옵니다. 그의 로브는 무릎까지 붉게 물들어 있고, 그것은 포도 주스가 아닙니다.

포도주 통 안에 누가 있었나요? 63, 1. 바스라란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바스라는 에돔의 수도이다. 에돔이 포도주 통 속에 있는지라 그가

에돔을 밟으니 그들의 피가 그의 옷에 다 쏟았느니라. 이제 당신은 혈액 신학의 양동이에 소름이 끼치는 좌파 사람들을 돕고 싶어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전사는 적들의 피를 온몸에 뿌렸습니다. 그는 포도주 통에 담긴 포도처럼 그것들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의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그들 자신, 그들 자신의 죄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패배시켰습니다. 에돔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돔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함락되어 멸망되었고, 에돔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막에서 온 아랍인들이 그 지역으로 침투하여 신약성서의 나바테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시점에는 에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경 설명에서 말했듯이 여기 3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돔은 하나님의 적들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성한 전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그의 옷에 튀어나오는 것은 누구의 피입니까? 그의 것. 그의 것.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이 전사는 적들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옷을 덮는 것은 그분 자신의 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회심, 중생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말 못하는 것처럼, 온유하고 온유하게 세상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의 죄를 물리치는 일에 있어서는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는 전사로 온다. 그분은 우리 삶에서 죄의 세력을 멸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그림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유하게 세상의 죄를 자신에게 짊어지고 사랑을 돌려주는 고난 받는 종. 그리고 그의 백성의 죄를 공격하고 파괴하기 위해 오시는 신성한 전사입니다.

자신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 십자가가 답입니다.

네, 지은 죄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의 힘인 죄에 대한 답입니다. 비극적이게도 복미 복음주의에서는 그것을 단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답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비극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 피는 지은 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죄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요한, 그러면 59장에서 그가 2인칭으로 말하고 63장에서 1인칭으로 말하는 것과 관련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질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9에서는 2인칭 이다. 아니면 세 번째. 63에서는 전사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이를 더욱 적절하고, 더 명확하고,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 좋은 관찰입니다. 괜찮은.

자, 그럼 힘차게 나아가자. 63.7은 64.12까지 이어지는 시를 시작합니다. 그 시를 보면 63.7부터 64.12까지인데, 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무 늦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셨는지를 기억하는 시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러다가 63.15부터 이러한 호소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보십시오.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말은, 하나님, 당신은 과거에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왜 이 일을 안 하시나요? 64장 1절입니다.

아, 주께서 하늘을 찢고 강림하시며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였으면 하리이다. 맏소사, 우리는 아직 일을 끝내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관찮을 거예요.

64.8. 이제 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 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당신은 우리의 토기장이입니다. 우리는 당신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오 주님,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라. 제발 보세요. 우리는 모두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메모는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은 그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타나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멀리 있습니다. 여기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호소의 근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빛을 쬐어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의 백성이 그에게 빛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빛진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도 선거 문제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께 일종의 자물쇠를 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사람들, 이 외국인들, 이 내시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빛도 지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는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신에 대한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3, 7부터 14까지. 이 연의 주요 주제는 무엇입니까? 신의 헤세드.

내 생각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 멜. 내 생각엔 그게 첫 번째 구절에 있는 것 같아. 나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따라 그분의 헤세드와 그분의 찬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여기 헤세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신, 낮은 사람에 대한 높은 사람의 과분한 헌신과 호의입니다. 자, 여기 이 스탠자에서 성령이나 성령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좋아, 멜이 3개라고 했어.

11절,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14절, 골짜기에 내려가는 가축과 같이 여호와의 영이 저희에게 안식을 주셨으나 그 전에도 계시다고 나는 믿습니다. 어디 보자. 10절에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성령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은 그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의 임재임을 인식합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의 좋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행진할 때와는 다르게 성령께서 그들 안에 개별적으로 함께하시고,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으실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들이 구약성서 전체에 걸쳐 점점 커지는 주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적인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토라를 사랑하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곳에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다른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우리 모두에게 그 영을 불어넣고 우리가 토라를 지킬 수 있게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결코 묻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내 계획이었어.

그래서 제 생각엔 본문에서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이 이제 세상에서 성령의 역사를 의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의 지도력이 필요하고, 그의 인도가 필요하며, 그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정신에 반역합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주의 영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사야가 사람들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성령,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 우리 안에는 새롭고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63, 15~19.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합니까? 그들에 대한 열정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훌륭한 칼빈주의자들이다. 그건 불친절한 일이지만... 어-허, 응. 음-흠, 음-흠, 음-흠, 예.

당신이 여기에 계실 때 우리 마음은 부드러웠지만 당신은 떠나셨고 우리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특히 당신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응, 응,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여기 없으면 니 잘못이야.

꽤 놀랍습니다. 응. 그러면 18절과 19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음-흠.

그는 자신의 거룩한 곳에 있었다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예. 음-흠, 음-흠, 예.

당신은 한동안 거룩한 곳에 계셨다가 지금은 떠나셨고 우리는 당신이 다스린 적이 없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Ruth는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음-흠.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가세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대적들에게 알려서 나라들이 당신 앞에서 떨게 하려는 것입니다.

좋아요, 적어도 그들은 초점을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을 하여 우리의 적들이 흔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선교 운동이 별로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세상이 당신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고 그건 좋은 일이다. 어딘가에 질문이 있나요? 누군가 말하고 싶어합니다. 왜 최고인을 주셨습니까? 네.

왜? 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나요? 그건 당신 잘못이에요. 네. 어... 네.

몇 주 전에 David Raban이 나에게 만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과 천사가 구름 위에 서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호 작용을 원한다면 그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어야 합니다.

네. 네. 그게 문제였습니다.

5절.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주목하세요? 예. 예. 그래서 그들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를 기뻐하며 너희 길에서 너희를 기억하는 자를 기쁘게 만나라. 응.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의를 행하는 자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께서 진노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더러운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왜 행동하셔야 합니까? 괜찮은. 그리고 그와 같은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40세에서 55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용하자면 그들은 저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당신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9절.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너희의 거룩한 성들은 광야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아름답고 거룩한 집이 불에 탔습니다. 오 주님, 이런 일들을 자제하시겠습니까? 침묵을 지키시고 우리를 이토록 심하게 괴롭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좋아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땅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집입니다. 땅, 사람, 집. 그들은 모두 영망입니다.

그럼 왜 연기를 안 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65절 1절과 2절.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느니라. 이제 이전 섹션에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에 대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별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들은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는 그것이 그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당신의 문제에 대해 그를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음-흠. 음-흠.

음-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음, 정확히는.

확실히 65:1부터는 본격적이진 않더군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 그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기꺼이 내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기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난에 근거하지 않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찾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다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글쎄,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그가 자기들을 떠났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그들이 불성실하고 불신앙적으로 행동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의지를 원했습니다. 물론, 내 생각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을 원했고 기본적으로 '예, 하나님, 당신이 저를 만드신다면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맞아요.

음. 그들은 우상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좋아요.

알았어, 알았어, 내 생각엔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는 점에는 확실히 동의합니다. 진정한 겸손.

제 생각에도 이것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Mary Jo가 방금 키웠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한 그들의 열망은 얼마나 깊었나요? 제 생각에 그것은 이 첫

번째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비난하고 싶습니까?
알았어, 맏소사, 우리는 엉망이고 그건 당신 잘못이에요.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러한 불의의 패턴에서 구원해 주시고
진정한 겸손으로 그분께 나아오며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응, 응, 응, 응. 만약 당신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 있습니다. 응, 응, 응.

아, 그렇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부흥의 패턴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것에 열정을 갖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 또는 소규모
그룹입니다. 응, 응, 응.

좋습니다. 이제 3절과 그 다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비난. 그들은 동산에서 제사를
드리며 벽돌 위에 제사를 드리며 무덤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자며 돼지고기를
먹는 백성이라.

그들의 그릇에는 더러운 고기의 국물이 있느니라 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너무 거룩하니라 그들이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점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왜 이런 종류의 로드된
언어를 사용합니까? 이는 그들의 내부 태도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만날 가장 거룩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나는 매일 헌신을 한다. 나는
매주 일요일에 두 번 교회에 갑니다.

시도해 보세요.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해요. 나는 아내를 자주
때리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열심히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나만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서 나를 노엽게 하며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제사하며 무덤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 고기와
더러운 고기 국물을 그릇에 담아 먹으며 이르기를 너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너에게 너무 거룩하다. 이것은 내 콧구멍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나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되더라도 쥐 국물을 먹는 편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거룩함은 내 코에서 악취가 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 했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선한 일, 명령받은 모든 선한 일이 당신 자신을 위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썩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신은 '잠깐만요. 거룩은 거룩하다'고 말하죠, 그렇죠? 아니 아니.

거룩함도 있고 거룩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 그리고 저는 여기서도 그런 종류의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6장을 보십시오.

2절 하반절.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돌보게 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57장에서 보았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거합니다.

소를 잡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과 같다. 개의 목을 꺾는 자처럼 어린양을 제물로 바치는 자. 소제를 드리는 자는 돼지 피를 드리는 자와 같으니라

유향으로 기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우상을 축복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들은 그들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가증한 일을 기뻐합니다. 이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소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것이 네게 유익이 되더라도 차라리 사람을 죽이는 편이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그들은 개의 목을 꺾어서 제단에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에 관한 것이며,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시도록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당신의 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매일의 헌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까? 나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나는 일요일에 두 번이라도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까?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한다. 나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까? 예, 예, 예.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내 성취와 내
자아상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Ruth가 처음에 말했듯이 모든 것은 태도입니다. 좋아요. 글썄, 여기서는
우리 시간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은 대부분 다 다루었습니다. 지금 봐. 그래서 그는 당신과
하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너희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겸손하고 통회하며 자신의
필요를 알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65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닌 나의 종들을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6절.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축복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축복하리라.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져 내 눈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을 창조하리라.

자, 기억하세요. for는 어떤 관계를 나타냅니까? 입증, 그게 뭐죠? 좋습니다.
결과가 있고 원인을 소개합니다. 즉,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결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축복할 것입니까? 왜
맹세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제 질문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약속을 고려할 때 천국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영생이나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이 삶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천국이 필요한가? 천국은 왜 필요한가?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뭐야? 구속의 관점에서 사물이 어떤 모습일지 말해야 할 필요성.

글쎄, 별. 응. 응.

응. 응. 단? 그들의 행동이 이생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생에서 결과가 와야 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으시지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 성취되는 삶이 있습니다.

예. 응. 분명한 사실은 육신의 축복을 받지 못한 채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고, 곳곳에서 축복을 받으며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 의해 능력을 부여하고 그분에 의해 가능하게 된 의가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려면 천국이 필요하다는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ifs도, ands도, buts도 없습니다. 사악함은 저주를 가져올 것입니다.

ifs도, ands도, buts도 없습니다. 만약 이 삶이 전부라면, 음, 항상 그런 식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창조물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아, 물론이죠.

전적으로. 그리하여 천국과 영생과 내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 필연적인 것이 됩니다. 이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생에서 큰 보상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너와 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면 그 사람 말대로 누렁이처럼 죽으면 한 번에 죽고 다 죽으니깐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신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좋아요. 66장에 대해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제가 수업에서 말했듯이 66장은 1장과 비슷합니다. 1장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1장은 1장과 1장을 오가며 진행됩니다. 판단과 희망.

여기 66장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결말을 보고 나서 떠나겠습니다.

17절.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동산에 들어가는 자들은 가운데 있는 자를 따르며 돼지 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과 쥐가 함께 멸망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제 그 동산의 일이 1장에서 바로 다시 나온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으며, 모든 나라와 방언을 모을 때가 오나니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표징을 행하라 그들 중에서 활을 당기는 다시스와 불과 로드와 두발과 야완과 먼 해변들 곧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며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내가 생존자를 보내리라 그러면 그들은 내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여기서 영광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주목하십시오. 카보드(Kavod), 하나님의 실재,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무게.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내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예물로 바칠 너희의 모든 형제 곧 유대인들을 열방에서 이끌어 내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병거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울 것이요 2장을 기억하라, 열국의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깨끗한 그릇에 소제물을 담아 여호와와의 전에 드리는 것 같이 우리도 여호와와의 전의 산에 오르자 하느니라. 그리고 그들

중 일부와 거의 모든 주석가들은 이것이 이방인을 가리킨다는 데 동의합니다. 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가리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초승달부터 안식일까지 항상 있으리라 모든 육체가 내 앞에 와서 경배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이사야는 이사야이므로 거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아,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결국에는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반역한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좋아요.

좋아요. 선택.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좋아요. 다음 주에는 중간 부분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John Oswalt 박사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까지의 29회기입니다.